

재래시장 살리려 월 2만원에 저렴하게 임대 했는데...

창고로 방치, 죽어가는 점포 어찌할꼬

“손님 와야 장사 하지” 송정5일시장 상인들 입구서 노점 판매
204개 점포 중 20여개만 영업...관리 소홀에 노점상만 양산
광산구 뒤늦게 대책 마련 나섰지만 상인 반발에 해법 못찾아

지난 3일 오후 장날을 맞아 찾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 5일 시장’은 대다수 점포가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시장에는 200여 점포(장옥·長屋)가 장방형의 형태로 운집해 있는데, 이날 문을 연 곳은 20여 군데에 불과했다. 장옥은 길 양쪽에 점포가 줄지어 늘어선 상점을 말한다. 같은 시간 손님이 없어 행한 ‘송정 5일 시장’과 달리 노점상들이 줄지어 시장 입구 도로변에는 손님들이 득실했고, 바로 옆 송정매일시장은 틈새를 비집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과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KTX개통이후 지역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송정매일시장과 달리 바로 옆에 붙은 송정 5일 시장은 점포 대다수가 문을 닫거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얘기다. 송정 5일장에서 20여년 간 채소를 팔아

왔다는 김문영(70) 할머니는 “이 쪽(5일장 점포)으로는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장사가 안 된다”면서 “5일 장날이라고 해도 손님은 죄다 큰길 도로쪽이나 매일시장만 찾는다”고 푸념했다. 송정 5일장의 한 상인은 “광산구에서 재래시장을 육성한다며 5일장 내 점포 1칸당 월 2만원 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있는데, 대부분 썩 맛(임대료)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점포 장사를 포기하고, 노점상으로 활동하다 보니 ‘송정 5일 시장’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송정 5일 시장’ 내 점포 중 상당수가 비어있거나 창고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시장 안쪽에 자리 잡은 상가보다 도로변이 유동인구가 많고 수익도 크다는 이

유로 점포 상인 중 일부가 노점상인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1964년 개장한 송정5일시장은 광주시와 광산구를 대표적 인 전통시장으로 전체 점포 숫자만 204개에 이른다. 광산구는 해당 점포를 ‘시장관리조례’에 따라 상인에게 1칸당 연 23만400원이 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다. 한 달 평균 2만원 꼴이다. 하지만 수년째 점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20여 개가 빈 점포로 방치된 상태이며, 80여개는 임대한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장날인 이날 영업중인 점포는 204개 중 20여 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신이 소유한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10여 m 떨어진 한 국밥집 건물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상인 A씨는 “손님들이 점포가 밀집된 골목으로는 잘 오질 않는다”며 “내 점포는 물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점 장사를 위해 건물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장날에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일대 5일 장을 찾아 다니는 장들뱅이 상인들과 송정 5일장 점포 상인들이 인근 큰길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연간 300만~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광산구는 뒤늦게 점포(장옥) 임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부 상인이 거세게 반발해 해법을 찾기 못하고 있다. 상당수 상인들이 구청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노점상으로 전환하면서, 송정5일시장의 주축도 노점상들로 구성돼 구청을 상대로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송정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노점상인 단속을 강화하고, 점포 중심의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화구역을 조성한 송정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주축 세력으로 자리잡은 노점상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장날을 맞아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송정매일시장’과 광산로 노점(왼쪽), 반면 대다수 점포가 창고로 사용되거나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 ‘송정 5일 시장’.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 부역자’ 유포 50대 명예훼손 무혐의

검찰, 개인적 의견 제시 판단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연현)는 지난달 31일

이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이모(53) 사무총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무총장이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고소장을 냈다. 이 시장은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사무총장은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취지의 글을 시장 당선 전후에 수차례 언론·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부역 논란이 일어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의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장 경선 당시에도 이 사무총장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선 이후 취하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후에도 이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장 광고 광주 동구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광고를 한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동구는 6일 주택법을 위반한 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추진위는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동구에 신고한 내용보다 분양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린 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동구가 승인한 조합원 모집 규모는 390여세대인데, 확정되지 않은 조합도를 사용해 815세대를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다. 추진위는 또 건설사 등이나 협의 없이

포스코에서 시공을 확정할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주택법 106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동구는 추진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했다. 동구 관계자는 “포스코의 이름 값만 믿고 내 집 마련 기회를 꿈꾼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우려돼 조합 추진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성 추행 의혹’ 광산구의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광주광산경찰은 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광산구의원 A씨를 지난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21일 오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 등 증거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정장 등 6명 구속영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9개월 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전지정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

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훈(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화 추정 주택 화재
영암에서 50대 숨져

6일 새벽 2시 5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A(여·59)씨가 숨지고 주택 1층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운영하는 식당 장사가 잘되지 않아 신변을 비판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영암·전북통기자 jbh@kwangju.co.kr

허위신고 일삼은 여성 돌려보내자 경찰 지구대에 돌 던져

성인물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의 말에 도리어 격분해 경찰 지구대에 돌맹이를 던졌다가 경찰서행. ○...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된 A(42)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 지구대에 찾아가 “대문이 잠겼다, 누가 침입한 것 같다”며 CC-TV 확인 요청을 했

는데, 경찰이 귀가를 권하자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 지구대 문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절도를 당했다는 등 신고를 해와 수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날도 지구대를 찾아와 허위신고로 하길래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돌을 던졌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4%로 최고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기여해준 4대 특별 (대우, 신한, 삼성, 신한) 특별대출
- 지역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